



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' 좋은 광고상'에 선정된 32편의 작품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4편을 선정하고, 다시 이중 대상 2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상작을 결정했다.

대상에는 LG의 '기업PR 편견의 못 (광고회사 LBEST, HS에드)'이 전파부문 대상을, SK이노베이션의 '지구를 혁신하다 캠페인 - 북극곰, 지구 사막화 (광고회사 SK마케팅엔컴퍼니)'가 인쇄부문 대상을 받았다. 이 두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.

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파부문에는 롯데칠성음료의 '칠성사이다 소지도 (광고회사 대흥기획)'가, 인쇄부문에는 두산그룹의 '사람이 미래다 캠페인 (광고회사 오리콤)'이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.



1		
2	3	4

- ① 전파부문 대상을 수상한 LG 정성국 부사장이 최광식 장관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.
- ② 인쇄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두산그룹 조용단 전무
- ③ 전파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롯데칠성음료 이재혁 대표
- ④ TV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한 동아제약 최호진 부장(우)과 제일기획 조동욱 프로(좌)

인쇄부문 대상을 수상한 SK이노베이션 김중수 홍보실장 ▶



금번 제20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는 총 415편의 광고가 출품되었다. 1차 예심에서는 광고관련 교수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광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소비자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던 광고, 모방광고, 비방광고,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성 광고를 우선적으로 가려내어 총 282점을 선정했다. 2차 소비자심사단 투표심사에서는 서울YMCA 매스컴 모니터링 요원과 대학생 광고연합동아리인 애드컬리지, 애드파워, 애드플레이, 애드피아 소속 대학생 등 100명이 현장투표심사 결과 157점을 선정했다. 3차 본심사에서는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, 심장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, 여정성 아시아소비자경제학회 회장, 이희숙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, 유승엽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회장, 유창조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등 소비자학회 회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장시간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매체별, 업종별 총 32점을 선정하고,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4점과, 이 4점 중에서 다시 영예의 대상 2점을 선정했다.



▶ 라디오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한 신한은행 왕태욱 상무(우)와 Kim&Seal, 퍼기컴 부사장(좌)이 서별석 세명대 교수와 기념촬영을 했다.

1		
2	3	

- ① TV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한 KB금융지주 김왕기 부사장(우)과 LBEST 정성수 부사장(좌)이 이순동 한국광고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했다.
- ② TV부문 좋은 광고상 수상자인 동서식품 김종민 팀장(우)과 제일기획 민주홍 프로(좌)가 김상훈 한국광고학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했다.
- ③ 잡지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한 대한항공 이희식 전무(우)와 HS에드 이광림 전무(좌)가 여정성 아시아소비자경제학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했다.

